

내게 남은 작은 희망 하나

글 이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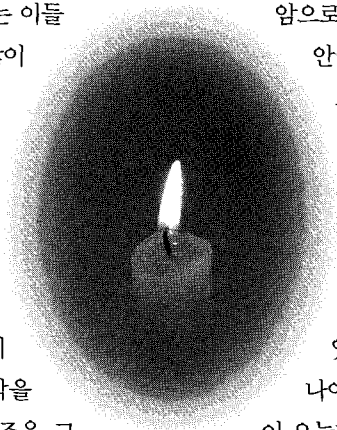
결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이 주위에 항상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인지
이제는 결핵과 함께 살
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
는 내 생활.

벌써 수없이 흘러보
낸 시간의 굴레가 또다시
한바퀴 돌아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즘 그
래도 내게 기쁨이 있는 것은 곧 다가올
둘째 아이의 결혼 준비로 마음이 설레이
는 것이다. 비록 몸은 마르고 숨은 가빠
서 이것저것 마음껏 챙겨 주지 못하는,
그래서 어미지만 어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렇게라도 살
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지.....

내게 있어 결핵은 참으로 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결핵에
걸렸고 오랜 시간을 투병했지만 결국 남
편은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폐



암으로 삶을 마칠 때까지 항상 집
안에 병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집의 모습이였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옆
에서 함께 생활하던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
럽게 결핵의 감염자가 되
었고 30대 후반의 그 젊은
나이에 시작된 결핵과의 싸움
이 오늘까지도 내게 이어지고 있으

니 참으로 질긴 인연이 아니런가!

처음 결핵의 발병을 알았을 때 그것은
충격이었지만 사실 그 충격조차도 내게
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뒷전일 수밖에 없
었다. 어차피 결핵에 대하여 이미 친숙했
던 터라 자연스럽게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다 복용을 하고 차도가 조금 있으면 바
쁘다는 핑계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병세가 심해지자 결국
국립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차도가 있으
면 퇴원을 하는 반복의 삶을 살 수밖에

“처음 결핵의 발병을 알았을 때 그것은 충격이었지만 사실 그 충격조차도 내게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결핵에 대하여 이미 친숙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다 복용을 하고 차도가 조금 있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없었던 나. 그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차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더 이상 약을 복용해도 그 약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지경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내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후회의 삶만이 남아 버리고 만 것이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5년의 세월, 이제는 숨이 차서 가끔은 산소를 마셔야 하고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아 남들처럼 편하고 즐거운 식사조차 할 수 없는 내 현실, 그리고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역시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과 작은 서러움.

이제 다음 달이면 둘째가 결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건강해진 모습으로 그 결혼식장에서 아들의 삶을 축복해 주어야 하는데... 하는 조급함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하는지 요즘은 더욱 몸이 힘들어지기만 한다.

이렇게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스산함이 창을 스치는 날이면 돌아볼 수밖에 없는 지난날의 삶들. 차라리 어렵더라도 병 치료에만 전념했다면 지금쯤 건강함으로

자식의 첫 출발을 마음껏 축복했을 텐데 하는 때늦은 후회 아닌 후회감이 가슴 한 구석을 아련한 아픔으로 젖어둘게 한다.

과연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결핵이라는 질긴 병의 사슬에서 놓여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해본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만이라도 활동할 수 있다면 이제 못다했던 어미의 정을 자식들과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잡은 아픔을 씻어줄 수 있을 텐데 하는 내 소망.

오늘도 내 작은 소망의 끈을 붙잡고 마른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해 본다.

내게 희망의 기도를 하계 하신 그분께, 서글픈 어미의 가슴에 사려진 이 슬픔의 눈물을 씻어주시길..... 그리고 내 희망이 가을바람처럼 그렇게 사라지질 않기를.....

결핵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고 이해하는 공간입니다. 결핵을 앓으셨다가 완치되었거나 현재까지도 앓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시연 기다립니다. 필자의 이름은 가명 표기합니다.